전남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 '해피BUS데이' 운영

장흥서 발대식…의료복지 확대
올해 농촌 왕진버스 40회 추진
68개 읍면 1만5000여명 지원
"농협과 협업…농촌 생활서비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14일 장흥 대덕다목적복지관에서 열린 '전남농협 해피BUS데이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농촌 의료사막화 해소에 나선다.

전남도는 14일 장흥 대덕 다목적복지관에서 '2025 해피BUS데이 발대식'을 열고 올 한 해 농촌 의료사막화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장흥군이 공동 참여해 농촌 의료복지 확대의 시작을 알렸다.

'해피BUS데이'는 농촌의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가까운 병원도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복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김성 장흥군수, 이정한 원광대 장흥통합병원장, 관내 조합장,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선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양·한방 의료 및 검안 △연세대학교 스포츠재활연구소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 △농가주부모임 전남지회의 음식 제공 △광주대학교의 사진 촬영과 네일아트 재능기부 등 다양한 무료봉사가 이뤄졌다.

특히 발대식의 핵심 정책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전남도-시군-농협이 협업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농, 외국인계 절근로자, 취약계층 등 누구나 대상이며, 사업 추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명창환 부지사는 "농촌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서 식품 사막화뿐만 아니라 의료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해피BUS데이 행사를 기점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실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왕진버스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전남형 찾아가는 농촌 생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농촌 왕진버스 운영은 올해 13개 시군, 68개 읍면, 총 40회 1만5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1만 95명이 검진받았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청년정책 홍보 '톡파원' 모집

21일까지 지원·총 10명 선정
정책 참여·공감도 향상 기대

광주광역시는 광주 청년정책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알리기 위해 청년정책 서포터즈인 '광주청년톡파원'을 운영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톡파원'은 청년의 시각에서 광주시 청년정책을 취재하고 영상·사진·글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또래 청년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대상은 콘텐츠 제작 역량이 있는 광주 청년이며 △블로그(글·사진) 8명 △영상(유튜브) 분야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센터에 문의하거나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톡파원은 5월말 발대식과 실무교육을 거친 후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톡파원은 △청년정책 콘텐츠 제작 △청년정책 수행기관 방문·프로그램 홍보

△청년 관련 행사 취재·홍보 △시·청년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청년 활동 개선 의견청취·제안 등의 활동을 펼친다.

참여자 전원에게 명함과 함께 소정의 활동비(블로그 6만원·영상 13만원)가 지급되며,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도 제공한다. 활동을 성실히 마친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정책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청년서포터즈인 청년톡파원이 청년과 정책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청년정책 서포터즈인 '광주청년톡파원' 사업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홍보 강화 필요성을 위해 제9기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으로, 위원회 우수 제안과제로 선정됐다.

정상아 기자

광주 서구, 직원 대상 '쉼 클래스' 운영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들이 14일 서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열린 '소도구를 활용한 체형관리 프로그램(체형교정 PT)'에서 전문강사로부터 목, 복부, 종아리 등 스트레칭을 배우고 있다. 서구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계발을 위한 '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도, 지역사회 체감형 복지 실현 속도

현장 프로그램 운영 점검
4월까지 1만5천여 도민 이용

전라남도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감형 복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직접 기획·발굴·운영하는 자율적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다.

전남도는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농어촌 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총 27개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지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14일 고흥 과역면 송학여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참여 중인 어르신을 격려했다.

송학여경로당에서는 신체활동이 부족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회, 회당 60분씩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농어촌 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서비스'와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에 '통합 테마 나들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정서적 활력과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4월 기준 전남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수와 제공 인력은 총 480곳, 973명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는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한부모가족 가사·주거 지원 사업 운영

연 135만원·임대보증금 지원
가족센터 통해 연중 신청 가능

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주거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회당 4만5000원씩 연 최대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경제활동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중의 가사도우미 플랫폼(웹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은 월 1회 모니터링·연 1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문의는 광주남구가족센터(070-4204-7939)로 하면 된다.

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현재 광주지역에 총 45호의 임대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입주자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보증금 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며, 2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연중 입주자 모집을 받으며, 상담·신청은 광주동구가족센터(062-419-1965)로 하면 된다.

정상아 기자

광주관광공사, 관광 창업 인재 아카데미 운영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는 지역 관광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5 광주 관광 창업 인재 아카데미'의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참신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 중심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1:1 전문가 멘토링,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발표 스킬 향상 교육, 관광 상품 개발비 지원까지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관광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30명이며, 교육 이수자 중 심사를 통해 10명을 선발해 총 1500만 원의 관광상품 개발비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전문가 1:1 멘토링, 총 상금 450만 원 규모의 상품 개발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 개발 상품은 팝업스토어 입점 기회 등 후속 지원까지 이어진다.

김진강 사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패키지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실전 준비 단계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광주의 창의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서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tourbiz.gjt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impureum@gjto.or.kr)로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062-367-0643)로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